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효만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1955년 7월 인천 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8년)



어린 시절에 화가가 되려고 하다

원래 초등학교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일찍부터 집안의 강한 반대로 접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장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미술대학을 향한 진학은 안되는 것이니 특별히 다른 분야로의 지향성이 없었습니다. 미술대학 진학이 가로막힌 상태라 더욱더 방향을 못 잡고 있던 터에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 긴박한 시점에서 누구한테 정보를 듣기를 건축설계의 분야가 미술과 공학의 중간지대인 학문일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건축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에 들어간 후에는 예상외로 아주 만족스런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과 일학년 때부터 의장실습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림도 그리고 조형실습을 하는 등 흥미로운 강의를 접하고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안도했습니다.

공간에서 몇 년 근무한 후 입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78년에 공간사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이범재 교수님이 당시 단국대학에 출강중일 때인데, 그래서 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범재 교수님이 팀장인 설계팀에 잠깐 실습을 한 경험을 통해서 공간사의 문화를 잠깐 맛보았지요.

당시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는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공간사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는 류춘수 실장님이 맡아서 하던 이란 알보즈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일도 다수 할 정도였고, 그래서인지 입사시험의 난이도도 대단했습니다.

**영어회화, 스케치, 면접의 삼단계 시험을 치르고 공간에 입문하다**

공간사에는 당시 남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 고문이사면서 공간의 고문도 맡아하시던 분이 입사지원자의 영어회화 시험까지 치르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이를 나누어주고 한 시간 안에 공간사 주변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그려내는 스케치 시험도 즉석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내보이며 김수근 선생과의 어려운 면담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합격하여 공간에 들어갔고 삼년 정도 있다가 입대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다시 공간에 들어가다**

1981년도에 바로 군대 갔다가 와서는 아람건축(김기석 선생님)에 다니다가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신 후인 84년에 공간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당시 공간사를 운영했던 장세양, 송효상 선생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입사요청을 받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장세양 선생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돈독했고 공간에 들어가서도 장선생 팀에서 항상 같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 89년도에는 결국 퇴사하고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 사후의 공간사의 불안정으로 개업을 하게 되다

개업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공간은 제가 볼 때 건축 외적인 문제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실무를 맡은 실장이었으나 그런 내부의 경영상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불편했고 미래적 비전 또한 불투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고 싶은 욕구 또한 충만해있을 때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일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근선생의 공간사에서 재직 중 담당했던 일들은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미술관,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뒤편에 있는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C 빌딩, 창원대림오토바이공장, 한샘기숙사, 강남에 있는 현재는 차병원건물인 회빈레스토랑,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록회관) 등 입니다.

**개업 후의 일들은 대부분이 주택이고, 많은 상을 수상하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주택들입니다. 임거당(97년, 2009WA건축상, 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학익재(95년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홍대앞에 있는 남강빌딩, 호유재, 와선재(2004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헤로헌(2005 아카시아 금상, 2009WA건축상,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등입니다. WA건축상은 월드아키텍처 커뮤니티(world architecture community)에서 주는 건축 상입니다.

그밖에 조린헌(2002아카시아상 금상,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자안재(2010WA건축상 수상), 녹성헌(2003년), 천안 TP-1(토폴팜패션사옥 1990년 초), 파주 출판단지 안의 포토피아(2009년) 등입니다.

**가평에 준공된 도헌이 해외잡지에 유명세를 타다**

2009년에 준공된 가평 북한강변에 지어진 도헌은 세르지오라는 이태리 사진작가로부터 촬영 요청이 들어 와서 유럽의 유명한 미디어인 월페이퍼, 네덜란드의 마르크, 타센 출판사의 아키텍처 나우(architecture now) 시리즈에 게재되었고 이태리 인테리어 잡지인 인테르니에도 게재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웹진인 「archdaily.com」에서 도헌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다른 여러 작품들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동안 해왔던 저의 모든 작품이 게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작년과 금년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자료를 보내느라 기분 좋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도헌의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들 눈에 띄었나 봅니다.

기성건축사나 학생들이나 서구건축의 발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인 또는 독창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한국 건축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서로 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건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건축이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조화되는  
그런 건축들이 준비해지는 건축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무소 직원은 두 명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는 직원이 거의 두 명 정도만 있는 상태로 작게 운영 해왔기 때문에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계약을 한 후에야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 두 명 직원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늘 고맙다

직원이 두 명밖에 없기에 조금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 년에 대략 3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 면 부담 없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건축에 대한 열정 또한 충만 하여 다른 불만 없이 사무소를 위해 애써주니 저는 그것 이상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 말고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사무소의 강점이자 약점이라면 본의 아니게 주택전문 사무소로 자리매 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건축 중의 일부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사실 건축사라면 모든 유형의 건축을 다양하게 전개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 주택설계의 좋은 점은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밀도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점이다

건축설계 말고 다른 일은 꿈도 꾸어보지 않은 이유는, 간혹 시공까지 손을 대었던 선배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아 시공에는 전혀 관계할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택설계가 좋은 점은 인테리어까지 디자인해야하는 밀도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획의 프로젝트이지요, 주택설계의 재미와 성취도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후계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가끔 저를 찾아주는 건축주들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의 수주활동에 관해서는, 저는 늘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일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 저를 찾아주는 건축주들은 고마운 귀인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의 생활신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 죽기 전에 나만의 건축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꿈이다

제게 굳이 비전을 말하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저만의 건축세계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 최근에 우리 사무소는 갑자기 세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기에 바쁘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는 규모에 비해 여러 개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갑자기 많아져서 지난달까지 세 개의 프로젝트가 끝나서 현재 세 개 다 감리중입니다.

세 개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의 프로젝트를 설계중입니다. 주택을 겸한 복합문화시설인데, 한강변에 연면적 600평정도의 규모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평창동에 200평정도 되는 주택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에 토지공사가 주관한 분당 주택박람회 단지에서 당시 유명건축가들이 지은 주택들 중에 한 단독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건축주가 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작업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기존 건물의 배치와 외관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군요.

### 나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는 교과서적인 수순이다

저의 건축설계프로세스는 교과서적인 것 같습니다. 대지의 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킨 후 의도적인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공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최종결과물로 나오는 내부공간의 내용들이 만들어낸 틀에, 제가 의도하는 저의 지적 감수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설계가 끝나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나는 스케치로 설계를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스케치로 한다

직원이 적어 맨 파워가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간에 있을 때 습득한 것이 프리핸드 스케치인데, 스케치를 통해서 공간과 형태를 유추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굳이 모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공간에 근무할 시절 저는 새카만 신입사원이고 당시 고참 팀장이셨던 류춘수 선배님이 강한 터치와 컬러링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눈여겨보고 신입사원 때부터 제가 따라서 흉내를 많이 내 봤고, 또한 스케치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스케치를 통해서 입체적인 공간의 상황을 전부 몸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모형조차 만들 필요가 없었고 스케치만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상상을 해왔던 것이지요.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물론 스케치된 이미지로 설명이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본 계획이 완성돼주기 때문에 사실, 시간비용 유



## 인터뷰 후기

김효만 건축사는 이야기 말미에 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번에 그를 만난 것이 딱 두 번째이고 그 기간이 이십년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그가 어떤 건축계행사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명의 직원을 두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공간이 보석처럼 숨어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도 된다. 아무튼 현재 한국건축계의 상황이 모든 건축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에 현재 바쁘다고 하는 말에서 불경기를 헤쳐 나가려는 건축인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싶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가 끝난 후에 전시를 위한 모형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공간은 작은 면적이라도 풍요로운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는 김수근 건축에서 공간의 변화와 다양성을 주시했기 때문에 제가 설계하는 건축물들은 작은 면적이라도 풍요로운 공간의 변화를 제공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공간의 사건들을 수록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조형성도 내부공간을 닮은것이 되고, 법적제한, 최대한의 볼륨 등의 조건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건축가의 감성을 부여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저의 건축에 대한 외국 사이트에서의 외국 건축사 및 학생들의 비판적 반응은 '복잡하다', '혼돈(chaos)' 등이고, 좋은 평가는 '독특하다', '이상하지만 아름답다' 등이며 '특별한 공간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싶지는 않다' 등 다양합니다.

**한국건축계는 동질화된 유사한 작품들의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현재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재의 건축계상황은...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동질화된 유사성 건축의 지루한 행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한 다른 쪽에서는 언제부터가 특별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트렌드만 이리저리 쫓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책해봅니다.

**서구건축의 영향이 한국에 너무 깊이 침투한 것 같다**

서구의 유럽의 건축이 한국에도 너무 깊이 침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한국건축가들의 작품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반면에 서구건축을 숭상하지 않고 자족적으로 성장해온 일본건축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로서, 현재 세계 건축문화를 리드하는 많은 건축가들을 배출해낸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건축가들이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자기만의 건축세계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한다**

당연하지만 미래의 한국 젊은 건축가들이 지나치게 서구유럽의 건축가들만 추종하고 그들에게 경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건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로 자신만의 건축을 지어내야한다고 봅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자

기만의 건축세계를 만드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되는 그런 풍토조성을 건축계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자기만의 건축세계의 발견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늘 반성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 갔다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며, 그 경험을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성건축사나 학생들이나 서구건축의 발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인 또는 독창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한국 건축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하는 건축계 풍토가 되었으면 하고 건축계 단체의 통합을 바란다**

이젠 서로 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건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건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건축이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조화되는 그런 건축들이 즐비해지는 건축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결국 삼단체가 관여하는 피카(FKA)가 아직도 통합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계의 원로들이 상호 힘을 교류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건축계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내게 오는 건축주들은 나의 스타일을 알고 오는 분들이다**

건축주들은 저의 건축적 취향에 일단 동의한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저의 건축은 일정한 스타일이 있을 것이니 건축주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또 그래서 의뢰해오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점이 작업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의견소통의 문제에서 아주 편한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의뢰 전에 건축사쇼핑을 하고 옵니다.

설계가 끝난 후 즈음 대부분의 건축주는 누구누구한테 갔다 왔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도 건축주의 근본적인 반론이 없이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거의 전부를 제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의 한계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에 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어떤 한계를 규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건축적 의도가 건축주들에 의해 가감 없이 살려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다오 안도에게 오는 건축주는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나 안도의 건축공간철학에 100%동의를 한 사람들만이 찾아오듯이 말이지요. 사무소 유지 측면에서 충분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작품을 수행하는 전 과정의 표준적 경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